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30.(목) 10:00
(지면) 2026. 4. 30.(목) 석간

더 빨라진 행정·더 꼼꼼한 정책 '온AI' 모바일 서비스 개시

- 내부망과 모바일간 대화 및 파일 공유가 가능한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 공간 제약 없는 회의·보고·결재로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 파일 저장 제한, 캡처 방지 등 업무 효율은 높이고 보안은 강화

< 온AI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업무 개선 사례 >

① 출장 중에도 막힘없는 문서 보고와 결재

- 이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사무실 밖에서 내부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급자가 사무실로 복귀할 때까지 급한 보고와 결재가 지연되곤 했다. 하지만 온AI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내부망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보고한 문서를 출장 중인 상급자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하고 수정 지시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② 이동 중 긴급한 회의 참석 및 실시간 자료 공유

- 과거에는 긴급한 회의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출장이 발생할 경우 회의 참석이 불가능했다. 이제는 온AI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이동 중인 차량이나 현장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회의에 접속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끊임 없는 협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 중에도 사무실 복귀 없이 스마트폰으로 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요약해 준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복잡할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오는 4월 30일(목)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AI는 지난 2025년 행정안전부가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쪽지창(메신저) 등 소통·협업 도구를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업무 환경이며, 이번에 개시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사무실 PC에서 활용하던 온AI를 외부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민간 클라우드와 AI 결합으로 ‘보안’과 ‘업무 효율’ 동시 해결>

그동안 공직 사회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무실 외부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제약이 따랐다. 특히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문서조차 외부에서 확인하려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다시 공직 메일 등을 통해 모바일로 옮겨 일반 상용 메신저로 전달하는 복잡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SaaS) 및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 업무에 안전하게 이식했다. 새롭게 개시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전자우편(메일), 쪽지창(메신저), 드라이브, 화상회의 등 필수 업무 도구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해 현장 중심의 유능한 행정을 뒷받침한다.

>> 실시간 결재부터 AI 회의록 요약까지, 스마트한 공직 환경 조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다.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망 문서를 즉시 공유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상급자는 이동 중에도 메모 기능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완이나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별도 PC를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회의 참석자들과 화면 및 문서를 공유해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끊임 없는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챗봇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회의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생성된 내용은 전자우편(메일)이나 쪽지창(메신저)으로 즉시 발송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한편, 모바일로도 보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 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만 로그인하도록 제한하여 외부의 불법 접근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에 더해 화면 담기(캡처) 방지와 모바일 환경 내 파일 저장 제한 등 보안 강화 조치도 병행해 이동 중 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

>> 하반기 40개 부처로 확대, 유능한 AI 민주정부 구현

이번 서비스는 30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어 실제 업무에 활용된다. 해당 기관 사용자들은 4월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내려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온AI의 범정부 확산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까지 40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

한편,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온AI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민재 차관은 모바일 보고와 결재 등 신규 기능을 직접 시연하며 서비스 완성도와 새 기능들을 점검했다.

윤호중 장관은 “온AI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공무원의 시간이 국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더 빠르고 유능한 AI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공공인공지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정준우 (044-205-2281)
		담당자	서기관	박범수 (044-205-2290)



□ **추진배경**

- 행정업무에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의 업무환경 및 AI가 이해할 수 있는 업무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온시**

- (기능) 업무망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 ‘AI 행정지원’,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를 위한 ‘업무공간’, 민간 SaaS 기반 ‘소통협업도구’로 구성
 - AI 행정지원: 내 문서 기반 자료검색, 문서초안 작성, 번역 등 지원
 - 업무공간: 과제관리, 웹 기반 문서작성*, 이력관리, 인수인계 지원
 - * 마크다운(#, *, - 등 간단한 기호로 글을 구조화하는 방식, 사람·AI 이해도 높음) 기반
 - 소통협업도구: AI로 접근가능한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드라이브 등

< 온시 주요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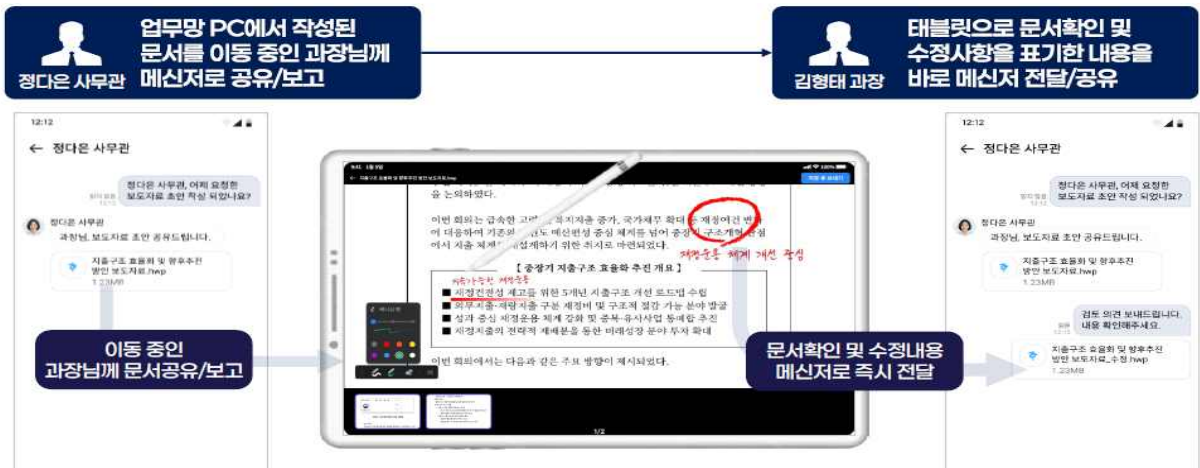
- (특징)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하여 유연성·보안성 확보
 - 기관별 개별 구축 부담 없이 공통 활용 가능
 - 다양한 AI 모델을 유연하게 교체·연계·확장할 수 있는 구조
 - 대구센터 PPP(민관협력존)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보안자료 활용 가능
- (이용기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 식약처(‘25.11월~), 40개 이상 중앙부처 대상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26년)

□ 온시 모바일 서비스

- (기능) 업무망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메일, 메신저, 드라이브 등을 개인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 AI 기능으로 메시지 요약, 회의록 생성, 메일 자동 발송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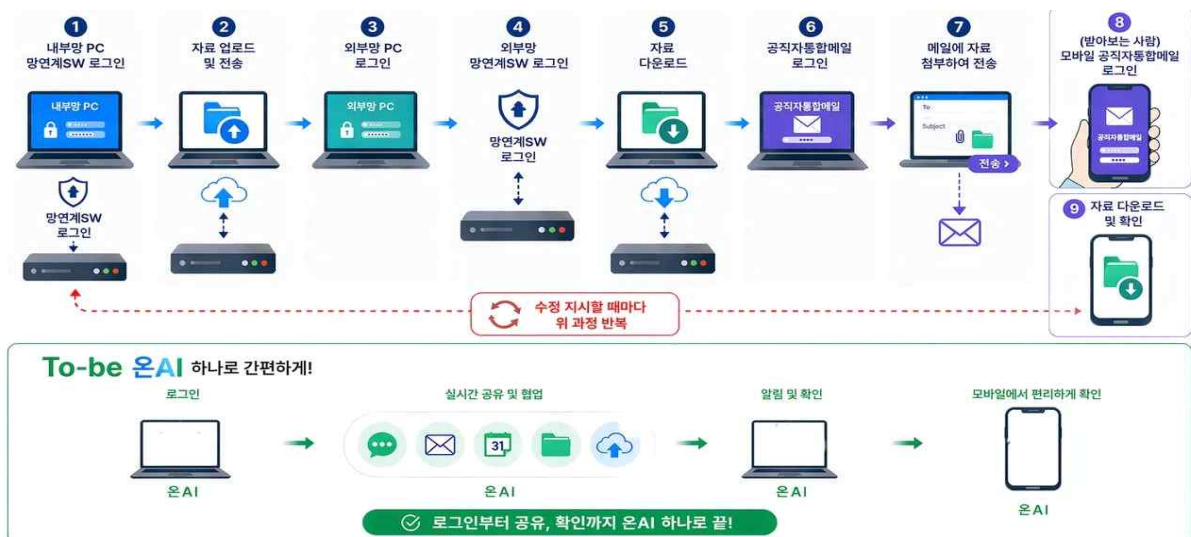
< 모바일 보고 및 결재 기능 >



- (특징) 공간 제약 없이 출장 등 이동 중에도 업무 처리 가능

- 모바일 서비스에서 업무망 메일 읽기·쓰기, 드라이브 내 파일 열람
- 업무망 PC와 개인 스마트폰 간의 메신저 단체 대화 및 영상회의 개설·참여 등 가능

< 모바일 서비스 도입 기대효과 >



- (이용방법) 온AI 이용기관은 '26.4.30.부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전용앱을 내려받아 모바일공무원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